

관광동굴 주변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 특성

홍 충 렬
경민대학 교수

I. 서론

자연동굴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 생성된 생명체이고 특유의 신비로움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이며 생태환경교육의 현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수단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는 동굴의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굴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역관광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동굴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 연구에서도 순수 동굴관광보다는 인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관광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자연동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관광동굴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의 분포와 관광자원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동굴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와 관광상품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연동굴중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그 가운데 일반인에 공개된 관광동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도화하였다. 그리고 관광동굴의 주변 관광자원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를 토대로 관광자원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였다. 지도화는 MapInfo 5.0을 이용하였다.

II. 동굴의 이용가치

학술적으로 동굴은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지하의 공동, 즉 자연동굴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굴은 지하의 공동 중에서 인간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직경이 30cm 정도 이상)를 가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굴 속에서는 아름다운 동굴생성물(중유석, 석순, 석주, 석화, 유석, 동굴산호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굴생물들의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이다.

동굴은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국가적, 세계적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동굴의 이용가치는 생태적 가치,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실용적 가치, 관광자원적 가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생태적 가치의 경우 동굴은 4억~5억년전 동굴 형성초기부터 성숙기까지 전 과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질적인 면과 지형적인 면(동굴생성물 포함) 그리고 생물적인 면에서 볼 때 생태의 보고이다.

둘째, 역사적 가치로서 동굴은 과거 인간생활의 터전으로서 자연으로부터 피난처나 심신을 수양하는 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쟁 때는 작전기지나 은신처로 이용되었으며 원시인들의 선사주거지나 종교의식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셋째, 학술적 가치로서 동굴내의 동굴생성물과 동굴생물의 생태는 중요한 학술조사의 대상이다. 동굴에서 자란 동굴생성물을 화학분석하면 과거의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었던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며 동굴과 같은 특이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명의 기원과진화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생물들은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실용적 가치의 경우 동굴내부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예전부터 특수자원의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되거나 탐험스포츠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섯째, 동굴은 생태적 관광자원의 가치를 가지며 최근 개발된 관광동굴들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자연적인 관광동굴 주변에는 산, 계곡, 하천 등 경관이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

Ⅲ. 자연동굴과 관광동굴 현황

1. 자연동굴 현황 및 분포 특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000여개가 넘는 자연동굴이 지질적으로 옥천대의 석회암지대와 제주도 현무암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성인에 따른 자연동굴의 종류에는 용암동굴(화산동굴), 석회동굴(중유동), 해식동 등 그 외에 빙하굴, 파쇄굴, 절리굴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굴은 공동의 형상 및 규모파악, 동굴형성과정의 규명, 미지형 및 동굴생성물의 분석, 미지형 및 동굴 생성물의 분석, 미기상 및 동굴생태계 탐색 등의 과정을 거쳐 그 동굴의 특

표 1.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동굴 현황

지정번호	동굴명	위치	개방여부
98	만장굴	제주도 북제주군	◎
98	김녕굴	제주도 북제주군	×
155	성류굴	경상북도 울진군	◎
177	천호굴	전라북도 익산시	×
178	환선굴	강원도 삼척시	◎
178	대이리동굴지대	강원도 삼척시	×
219	고씨굴	강원도 영월군	◎
226	초당굴	강원도 삼척시	×
236	협재쌍용굴	제주도 북제주군	◎
236	소천굴, 황금굴	제주도 북제주군	×
256	고수굴	충청북도 단양군	◎
260	백룡굴	강원도 평창군	×
261	은달굴	충청북도 단양군	◎
262	노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
342	빌레뒀굴	제주도 북제주군	×
384	당처물굴	제주도 북제주군	×
Total			21

◎: 개방, ×: 미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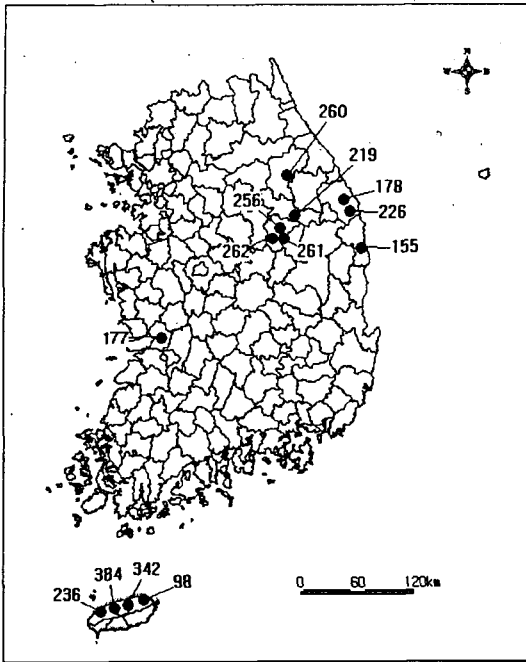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동굴 분포 현황

성 및 학술적 가치로 보아 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굴은 총 21개이다. 지역별로는 북제주군과 삼척시가 각각 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양군이 3개, 익산시, 울진군, 영월군, 평창군이 각각 1개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동굴중 관광동굴로 개발된 동굴이 8개, 미개발된 동굴은 13개이다. 지방기념물 동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2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월군이 3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북제주군이 각각 2개, 안동시, 문경시, 단양군, 화순군, 무주군, 합천군이 각각 1개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다. 지방문화재 동굴중 관광동굴로 개발된 동굴이 3개, 미개발된 동굴은 18개이다.

표 2. 우리나라 지방기념물동굴 현황

지정번호	동굴명	위 치	개발여부
19	천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
23	용담굴	강원도 영월군	×
24	회순굴	전라남도 화순군	×
27	모산굴	경상북도 문경시	×
31	연하굴	강원도 영월군	×
32	대야굴	강원도 영월군	×
33	비룡굴	강원도 정선군	×
34	화암굴	강원도 정선군	◎
35	등대굴	강원도 강릉시	×
36	미리굴	경상북도 안동시	×
36	소대굴	강원도 강릉시	×
37	옥계굴	강원도 강릉시	×
38	비선굴	강원도 강릉시	×
39	용연굴	강원도 태백시	◎
40	저승굴	강원도 삼척시	×
41	활기굴	강원도 삼척시	×
41	미산굴	전라북도 무주군	×
52	뱅뒤굴	제주도 북제주군	×
53	북천굴	제주도 북제주군	×
58	월둔굴	강원도 태백시	×
70	배티굴	경상남도 합천군	×
합 계			21

◎: 개발, ×: 미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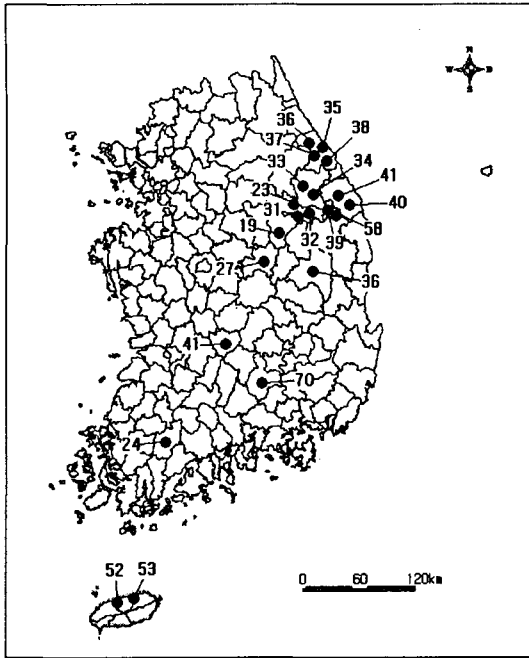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지방기념물동굴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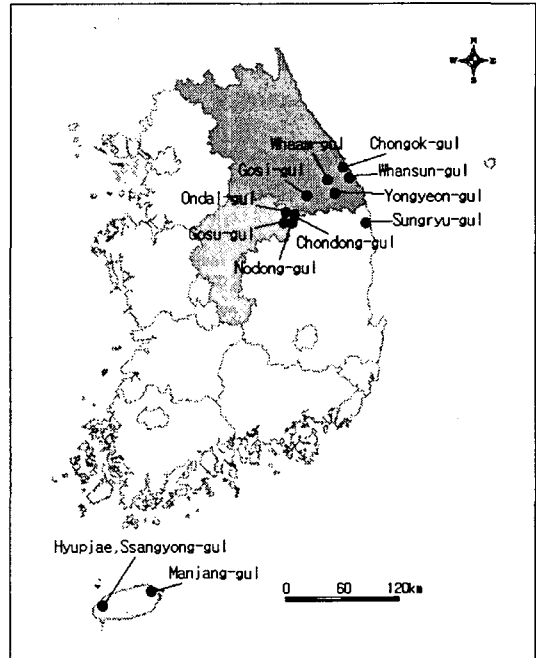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관광동굴의 지역별 분포

2. 관광동굴 현황 및 분포 특성

2004년 현재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관광동굴은 12개로 이 가운데 석회동굴이 10개이며 용암동굴은 2개이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보면 강원도에 5개, 충청북도에 4개, 경상북도에 1개 그리고 제주도에 2개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연도별 개방시기를 살펴보면 7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4개의 동굴이 개방되었으며 80년대에 2개, 60년대와 2000년대가 각각 1개의 동굴이 개방되었다. 1969년에 최초로 제주도 만장굴이 개방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화암굴이 2000년도에 재개방하였다.

표 3. 우리나라 관광동굴 현황

동굴명	위 치	개방년도	기념물 지정 현황
만장굴	제주도 북제주군	1969. 8	천연기념물 98호
고씨굴	강원도 영월군	1974. 5	천연기념물 219호
성류굴	경상북도 울진군	1976. 1	천연기념물 155호
고수굴	충청북도 단양군	1976. 9	천연기념물 256호
천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1978.10	지방기념물 19호
협재쌍용굴	제주도 북제주군	1983. 1	천연기념물 236호
노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1990. 1	천연기념물 262호
천곡굴	강원도 동해시	1996. 5	-
환선굴	강원도 삼척시	1997.10	천연기념물 178호
용연굴	강원도 태백시	1997.10	지방기념물 39호
온달굴	충청북도 단양군	1997.11	천연기념물 261호
화암굴	강원도 정선군	2000. 6	지방기념물 34호

Ⅳ. 관광동굴 주변의 관광자원 유형별 특성

관광동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동굴별 관광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였다. 관광자원은 일반적인 분류에 의한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위락·스포츠적 관광자원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관광자원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산악과 해안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관광자원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위락적 관광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관광자원의 경우 고씨굴, 성류굴, 협재쌍용굴, 환선굴, 온달굴, 화암굴, 사회적 관광자원의 경우 성류굴, 용연굴, 위락적 관광자원의 경우 협재쌍용굴, 화암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동굴별로는 성류굴, 협재쌍용굴, 화암굴이 타 관광동굴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자연동굴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의 지역적 특성과 관광동굴 주변 관광자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념물동굴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와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관광동굴의 지역적 특성은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관광동굴 주변 관광자원유형별 분포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연관광자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동굴의 관광객 흡인력을 증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동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과의 연계특성을 고려한 관광루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관광동굴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상품 및 타 관광동굴과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요건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동굴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향후 각 지역별 관광동굴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태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관광동굴별 이용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홍충렬·김원진, 2001, "대학생들의 관광행태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관광정보연구, 7, 68-77.

홍충렬·김원진,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동굴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동굴학회지, 65, 27-36 .

Murphy, P. E., 1993, "Community-driven tourism planning and residents p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14(3), 218-227.

Spate, A., 2001, "Strategies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ves in Australia", paper presented 2th Seminar for Preservation of Natural Heritage, Korea, 31-74.

<http://donghae.gangwon.kr>(강원도 동해시)

<http://gun.yeongwol.gangwon.kr>(강원도 영월군)

<http://taebaek.go.kr>(강원도 태백시)

<http://www.bukjeju.go.kr>(제주도 북제주군)

<http://www.danyang.chungbuk.kr>(충청북도 단양군)

<http://www.jeongseon.go.kr>(강원도 정선군)

<http://www.samcheok.gangwon.kr>(강원도 삼척시)

<http://www.uljin.go.kr>(경상북도 울진군)

<http://www.knto.or.kr>(한국관광공사)